

2008년과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념과 투표⁽¹⁾

이우진 · 김태은

이 논문에서 우리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에는 동아사이 연구원-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이념분포는 대략 중도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였다. 우리는 유권자가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념위치를 갖는 정당 또는 후보에 투표하였을 경우,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비율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3.6%,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5.4%로 두 경우 모두 비슷하였다.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정도는 성별, 학력별, 소득별, 종교별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연령별, 그리고 이념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이념적으로는 보수층이 이념충실도가 높았다. 회귀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띄며, 보수적 성향일수록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이념, 투표, 투표의 공간이론

1. 서론

‘이념’(ideology)이란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혹자는 현실적이거나 실용적인 것에 대비되는, 이상적이거나 교조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조롱하면서 지칭할 때 ‘이념적’이란 단어를 사용하곤 한다. 맑스주의자들은 이념이란 단어를 ‘대중들의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을 조장하는 기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다운스는 이념을 ‘좋은 사회에 대한 언술적 묘사이면서 그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요수단’이

(1)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30-B00077).

라고 정의한다[Downs(1957)].

이처럼 이념에 대한 정의나 용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 다양한 정의들을 자세히 소개하거나 그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과학적 개념으로서의 이념을 “개인의 행동이나 사회의 조직 방식에 대한 어떤 규범적 함축들을 끌어 낼 수 있는 생각들의 집합”[Reichley(1981), North(1990)]이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이념은 그 이념의 소유자에게 (i) 윤리적 선과 악을 구별시켜주고, (ii) 사회의 자원들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며 (iii) 권력의 소유와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정해 준다[Hinch and Munger(1994)]. 따라서 이념은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고, 정치와 경제에 대해 토론·논쟁하며, 정치와 경제를 변화시키는 개념적 프레임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이념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적 행위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우진·이원석(2012)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얼마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연구원-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평가한 자기 자신의 이념위치와, 실제 투표한 정당·후보의 이념위치를 비교·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서로 성격이 상이한 선거들을 혼합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연도를 분석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는 이해하나 서로 다른 종류의 선거를 뒤섞어 분석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우진·이원석(2012)의 연구방법을 사용하되 같은 종류의 두 개의 선거, 즉 2018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기의 동아시아 연구원-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패널 자료에서는 매우 진보를 0, 매우 보수를 10으로 하여 응답자 자신과 주요 정당 및 후보의 이념위치를 11개의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 우리는 모든 유권자들과 모든 정당들의 정책 위치를, 이념이라는 일차원적 변수로 정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응답자가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념위치를 갖는 정당 또는 후보에 투표하였을 경우,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절에서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이념충실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우

리의 분석에 의하면, 2012년 선거에서 우리나라 유권자의 약 절반 정도가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2008년 선거에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3절에서는 유권자의 성별·소득별·교육수준별·연령별로 이념과 투표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008년과 2012년 선거에서 모두, 성별, 소득별, 교육수준별 인구 그룹 간에는 이념과 투표성향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연령별 그룹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절에서는 이념위치의 결정요인과 이념에 충실한 투표여부의 결정요인을 다변수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우리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띄며, 보수적 성향일수록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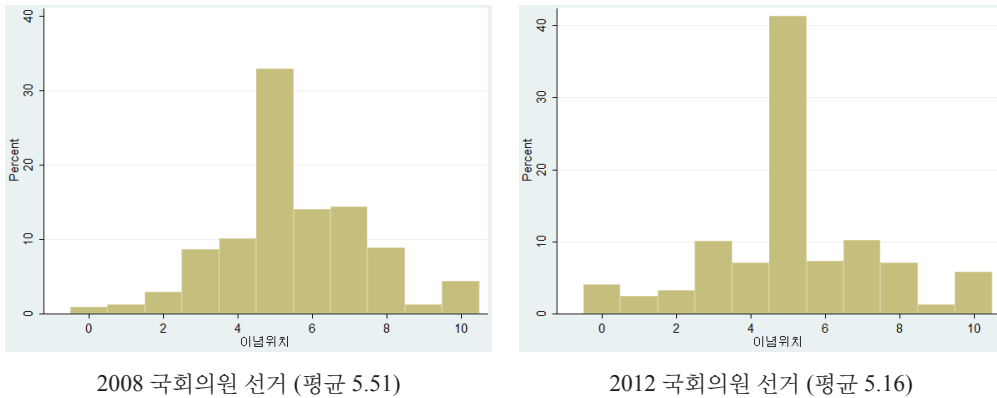
5절은 결론이다.

2. 유권자와 정당의 이념성향

우리는 동아시아 연구원·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패널 조사의 이념에 관한 설문⁽²⁾을 활용하여, 유권자가 평가한 자기 자신과 주요 정당의 이념 위치를 측정하였다. 상기 전국패널 조사는 2008년과 2012년의 경우, 1차 조사는 선거 전에, 2차 조사는 선거 후에, 총 2차례의 조사를 행하였다. 이념에 관한 설문은 해당 선거의 주요 정당과 응답자 자신의 이념위치를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조사하고 있는데 0이면 매우 진보, 5는 중도, 그리고 10은 매우 보수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숫자들이 기수적(cardinal)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숫자들의 크기는 응답자들 간에 비교가 가능(interspersonally comparable)하다고 가정한다.⁽³⁾ 우리는 분석에서 표본수가 작은 제주지역 거주자, 제주·이북5도·외국 출신자는 제외하였다.

(2) 2008년: 1차 문 20, 2차 문 18 / 2012년: 1차 배문 5, 2차 문 12, 배문 5

(3) 이념수치들의 응답자간 비교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평균적 이념위치와 같은 개념은 전혀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숫자들은 서수적 의미만을 갖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볼 때 11개의 서로 다른 숫자로 묻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이 숫자를 기수적 의미로 받아들일 확률이 크다고 본다. 여론조사분석에서는 숫자의 종류가 작으면 (예컨대 3개) 그 숫자들이 서수적인지 기수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숫자의 종류가 이 경우처럼 매우 많은 경우에는 그 숫자들을 기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림 1〉 응답자의 이념 분포

응답자들이 평가한 응답자 자신의 이념위치 평균은 5.51(2008년)과 5.16(2012년)으로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 이념성향은 중도에 가까웠다. 이념의 전체 분포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체로 5를 중심으로 대칭형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다소 보수성향이 많은 편이었으나, 2012년에는 대칭형에 가깝게 바뀌면서 중도성향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념위치를 나타내는 총 11개의 숫자들 중 가운데에 있는 5를 택한 응답자 비율은 2008년에는 33.0%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41.3%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23.9%, 보수성향의 응답자가 43.1%였으나, 2012년에는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26.9%, 보수성향의 응답자가 31.8%로, 그 차이가 약 19%p에서 약 5%p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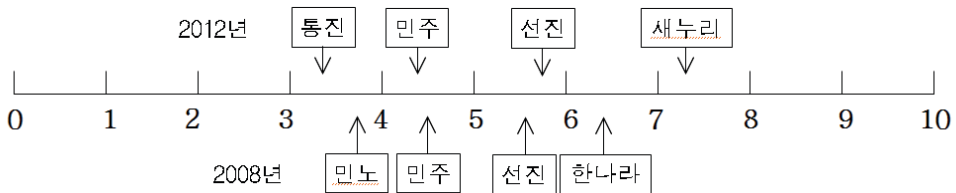
유권자 이념위치의 전국 평균은 5에 가깝지만 지역별로는 약간씩 편차가 있었다. 지역별로 응답자의 이념위치를 평균한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2012년 지역별 평균치로 보면 서울(5.11), 인천(5.11), 경기(5.21), 강원(5.14), 부산(5.22) 지역은 전국 평균에 가까운 반면, 광주(4.72), 전북(4.70), 전남(4.61) 지역 등은 전국평균보다 더 왼쪽에 있고, 대구(5.61), 충북(5.47), 경북(5.47) 지역 등은 전국평균보다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중도 또는 중도진보 성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광주(0.91), 강원(0.63), 부산(0.54), 전북(0.51), 경남(0.49)의 이동정도가 상대적으로 컸고, 인천(0.01)과 대구(0.02)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응답자가 각 정당의 이념위치에 대해 평가한 것은 〈그림 2〉에 요약하였다. 이를 보

〈표 1〉 지역별 이념위치

| 지역 | 2008년 | 2012년 |
|----|-------|-------|
| 서울 | 5.40 | 5.11 |
| 부산 | 5.76 | 5.22 |
| 대구 | 5.63 | 5.61 |
| 인천 | 5.12 | 5.11 |
| 광주 | 5.63 | 4.72 |
| 대전 | 5.77 | 5.32 |
| 울산 | 5.35 | 5.02 |
| 경기 | 5.57 | 5.21 |
| 강원 | 5.77 | 5.14 |
| 충북 | 5.97 | 5.47 |
| 충남 | 5.50 | 5.29 |
| 전북 | 5.21 | 4.70 |
| 전남 | 4.74 | 4.61 |
| 경북 | 5.86 | 5.47 |
| 경남 | 5.54 | 5.05 |
| 전국 | 5.51 | 5.16 |



〈그림 2〉 선거에서 응답자들이 평가한 주요 정당의 이념 위치

(2008년) 민주노동당: 3.81, 통합민주당: 4.55, 자유선진당: 5.54, 한나라당: 6.48

(2012년) 통합진보당: 3.36, 민주통합당: 4.36, 자유선진당: 5.74, 새누리당: 7.17

면, 우리나라 유권자는 평균적으로 보아 새누리당의 이념위치를 대략 7.17, 민주통합당의 이념위치를 대략 4.36 정도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권자들이 정당 간의 이념적 양극화가 더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은 3.81에서 3.36으로, 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은 4.55에서 4.36으로, 자유선진당은 5.54에서 5.74로, 한나라당/새누리당은 6.48에서 7.17로 이념적 분화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보수정당이 보수쪽으로 치우친 정도를 진보정당이 진보 쪽으로 치우친 정도 보다 더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표 2〉 투표 성향에 따른 응답자 및 주요 정당의 이념 위치

| 구 분 | | 응답자 자신 | 통진당/ 민노당 | 민주당 | 선진당 | 새누리당/ 한나라당 | |
|------------|------------|-----------------|-------------|------|------|---------------|------|
| 2012년 | 전 체 | 5.16 | 3.36 | 4.36 | 5.74 | 7.17 | |
| | 지역구 선거 | 새누리당·선진당 투표자 | 6.01 | 3.07 | 3.95 | 5.26 | 6.95 |
| | | 민주당·통진당 투표자 | 4.49 | 3.41 | 4.57 | 6.25 | 7.51 |
| | 비례대표 선거 | 새누리당·선진당 투표자 | 6.09 | 2.99 | 3.9 | 5.17 | 6.95 |
| | | 민주당·통진당 투표자 | 4.46 | 3.46 | 4.58 | 6.26 | 7.47 |
| | 2008년 | 전 체 | 5.51 | 3.81 | 4.55 | 5.54 | 6.48 |
| 지역구 선거 | | 한나라당·선진당 투표자 | 6.07 | 3.61 | 4.43 | 5.44 | 6.45 |
| | | 민주당·민노당 투표자 | 4.47 | 3.79 | 4.71 | 5.67 | 6.65 |
| 비례대표 선거 | | 한나라당·선진당 투표자 | 6.13 | 3.49 | 4.23 | 5.47 | 6.51 |
| | | 민주당·민노당 투표자 | 4.72 | 4.02 | 4.81 | 5.44 | 6.64 |

알 수 있다. 예컨대 정중양인 5와의 격차가 통합진보당은 1.64, 민주통합당은 0.64이지만 자유선진당은 0.74, 새누리당은 2.17로, 보수정당과 중간과의 격차가 진보정당과 중간과의 격차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2〉에는 보수 및 진보정당 지지자 별로 응답자 자신의 이념위치와 응답자가 평가한 각 정당의 이념위치 평균이 정리되어 있다. 즉, 소위 보수정당(한나라/새누리당, 선진당)에 투표한 응답자들이 평가한 각 정당의 이념위치와, 진보정당(민주당, 민노당/통진당)에 투표한 응답자들이 평가한 각 정당의 이념위치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자는 유권자 전체에 비해 모든 정당을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후자는 유권자 전체에 비해 모든 정당을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점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이 이념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살펴보자.

〈표 3〉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이념성향과 투표성향

(단위: %)

| | 2008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 | | | 2012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 | | |
|----------------|--------------------|-----------|-----------|------|--------------------|-----------|-----------|------|
| | 민주 노동당 | 통합 민주당 | 자유 선진당 | 한나라당 | 통합 진보당 | 민주 통합당 | 자유 선진당 | 새누리당 |
| 진보성향 (0-4) | 4.9 | 40.4 | 2.6 | 18.4 | 6.9 | 44.9 | 0.8 | 17.0 |
| 중도성향 (5) | 1.9 | 24.5 | 4.6 | 41.6 | 3.6 | 33.2 | 1.0 | 26.8 |
| 보수성향 (6-10) | 2.3 | 16.4 | 4.0 | 49.9 | 1.3 | 20.4 | 1.5 | 49.7 |

〈표 4〉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이념성향과 투표성향

(단위: %)

| | 2008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 | | | 2012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 | | |
|----------------|---------------------|-----------|-----------|------|---------------------|-----------|-----------|------|
| | 민주 노동당 | 통합 민주당 | 자유 선진당 | 한나라당 | 통합 진보당 | 민주 통합당 | 자유 선진당 | 새누리당 |
| 진보성향 (0-4) | 8.6 | 32.6 | 1.5 | 15.7 | 20.0 | 34.6 | 1.4 | 14.8 |
| 중도성향 (5) | 5.4 | 21.7 | 6.5 | 30.7 | 10.3 | 29.7 | 1.8 | 25.0 |
| 보수성향 (6-10) | 2.5 | 13.3 | 5.6 | 41.2 | 5.4 | 17.3 | 1.7 | 50.8 |

이념에 얼마나 충실하게 투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유권자의 이념을 진보성향, 중도성향, 보수성향으로 자의적으로 나눈 후 각각의 이념성향별로 각 정당에 투표한 비율이 얼마나 큰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는 0-4를 진보성향, 5를 중도성향, 6-10을 보수성향으로 나눈 후 이념성향별 투표비율을 계산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가 〈표 3〉과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진보성향의 응답자는 진보정당에, 보수성향의 응답자는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8년에는 진보성향 응답자 중 45.3%(=40.4%+4.9%)가, 2012년에는 51.8%(=44.9%+6.9%)가 진보정당에 투표하였고, 2008년에 보수성향 응답자 중 53.9%(=49.9%+4.0%), 2012년에는 51.2%(=49.7%+1.5%)가 보수정당에 투표하였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진보성향 응답자의 경우에는 2012년에 41.2%가, 2012년에는 54.6%가 진보정당에 투표하였고, 보수성향 응답자의 경우에는 2008년에 46.8%가, 2012년에는 52.5%가 보수정당에 투표하였다.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전반적으로 보수정당들에 대한 투표율이 감소하고, 진보정당들에 대한 투표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중도성향 응답자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2008년에 26.4%, 2012년에 36.8%가 진보정당에 투표하였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2008년에 27.1%, 2012년에 40%가 진보정당에 투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성향에 따른 투표율 분석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응답자의 이념위치가 4이면 응답자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만일 그 유권자가 진보정당을 1로 보수정당을 6으로 평가하였다면, 자신의 이념위치와 더 가까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자신의 이념에 더 충실한 투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였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응답자 자신의 이념위치와, 응답자가 평가한 정당의 이념위치를 각각 확인한 후, 각 응답자가 이념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을 찾아, 얼마나 많은 응답자가, 이념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당에 투표 하였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분석방법을 도식적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권자 i 가 정당 j 로부터 얻는 효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2.1) \quad u(a_i, \alpha^j) = -v(a_i - \alpha_i^j) + \varepsilon_i^j$$

여기서 a_i 는 유권자 i 의 이념위치이고, α_i^j 는 유권자 i 가 평가한 정당 j 의 이념위치이며, ε_i^j 는 이념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유권자 i 가 정당 j 에 대해 얻게 되는 효용 (예컨대 정당후보의 외모, 언변의 유창함, 도덕성, 혹은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효용이나 비효용)이나 우발적 요인으로 인해 유권자 i 가 정당 j 에 대해 얻게 되는 효용 (예컨대 특정 정당후보의 추문이나 비리 등으로 인한 효용이나 비효용)을 나타낸다. 그리고 $v(\cdot)$ 는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⁴⁾을 취하고 $x > 0$ 인 경우에는 $v'(x)$

(4) 좌우 대칭적인 효용함수는 지나치게 단순한 형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대칭적인 효용함수는 그 종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에게 서로 다른 비대칭적 효용함수를 부여하게 되면 경험적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유권자에 대하여 대칭적인 효용함수를 가정하는 것은 그리 무리한 가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표 5〉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응답자 비율

(단위: %)

| 지역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 |
|----|---------------|------|---------------|------|
| | 지역구 | 비례대표 | 지역구 | 비례대표 |
| 서울 | 54.4 | 53.6 | 55.3 | 54.6 |
| 부산 | 52.1 | 57.4 | 53.5 | 57.7 |
| 대구 | 51.4 | 51.5 | 61.0 | 54.2 |
| 인천 | 48.8 | 40.5 | 50.7 | 54.2 |
| 광주 | 42.9 | 40.9 | 50.0 | 39.5 |
| 대전 | 54.8 | 65.2 | 53.8 | 43.6 |
| 울산 | 70.0 | 76.5 | 48.3 | 60.0 |
| 경기 | 53.8 | 57.0 | 59.0 | 59.7 |
| 강원 | 75.0 | 56.2 | 54.8 | 55.8 |
| 충북 | 72.7 | 63.2 | 48.7 | 47.2 |
| 충남 | 40.0 | 51.5 | 56.9 | 57.1 |
| 전북 | 57.7 | 71.4 | 50.0 | 58.0 |
| 전남 | 50.0 | 45.2 | 54.3 | 58.2 |
| 경북 | 53.3 | 66.7 | 59.7 | 61.8 |
| 경남 | 49.0 | 50.0 | 51.9 | 49.4 |
| 전국 | 53.6 | 55.4 | 55.4 | 55.7 |

> 0 이고 $x < 0$ 인 경우에는 $v'(x) < 0$ 이다.

유권자 i 가 이념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당 k_i 는 $k_i \equiv \operatorname{argmin}_j v(a_i - \alpha_i^j)$ 이므로, 만일 이렇게 구해진 k_i 가 유권자 i 가 실제 투표한 정당 l_i 와 일치하면 유권자 i 는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것이 된다. 반대로 만일 $k_i \neq l_i$ 이면 유권자 i 는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표한 것이 된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우리는 분석에서 4대 정당 외의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비율은 지역구의 경우 55.4%이며, 비례대표의 경우 55.7%이다.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들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대구(61%), 경기(59%), 경북(59.7%) 등이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울산(60%), 경기(59.7%), 경북(61.8%) 등이다. 반면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역들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울산(48.3%), 충북(48.7%) 등이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광주(39.5%), 대전(43.6%), 충북(47.2%) 등이다.

2008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2008년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53.6%, 비례대표 선거에서 55.4%가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보다 2012년에 해당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선거사이에 이념에 충실한 투표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지역들은 지역구 선거의 경우 대구(9.6%P), 충남(16.9%P) 등이고,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인천(13.7%P), 전남(13%P) 등이다. 반면 해당 비율이 크게 감소한 지역들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울산(-21.7%P), 강원(-20.2%P), 충북(-24%P) 등이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대전(-21.6%P), 울산(-16.5%P), 충북(-16%P) 등이다.

3. 이념위치와 이념에 충실한 투표의 성별, 학력별, 소득별, 연령별 차이

2절에서 우리는 응답자들의 이념위치와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비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성·학력·소득·연령 등 응답자의 인구그룹에 따라 이념위치와 이념충실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표 6>과 <표 7>에 그 계산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7>에 요약된, 2012년 선거 시의 계산결과를 보면, 성간 격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남성의 이념위치 평균이 5.09, 여성의 평균이 5.24로, 여성이 스스로에 대해 조금 더 보수적이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2008년보다는 평균적으로 중도성향에 가까워졌다. 한편, 남성과 여성이 각각 새누리당에 대해 7.29, 7.04, 민주통합당에 대해 4.25, 4.49, 통합진보당에 대해 3.00, 3.77, 자유선진당에 대해 6.11, 5.32로 평가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수정당을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진보정당을 더 진보적이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의 경우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그룹의 이념위치 평균이 6.09, 고졸 그룹은 5.37, 대재와 대졸 이상은 각각 4.89 및 4.86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신의 이념위치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성향으로 간주한다면, 중졸 이하 그룹은 2008년도에 6.10에서 2012년에 6.09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고졸 그룹은 5.74에서 5.37로 보다 중도에 가깝게, 대재이상은 5.32에서 약 4.9로 보다 진보성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정당의 이념위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룹별 차이 또는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소득별로는 실질적으로 그룹 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2008년과 2012년을 비교한

〈표 6〉 2008 선거 시 응답자 자신과 정당의 이념위치: 성별, 학력별, 소득별, 연령별

| | | 응답자자신 | 민주노동당 | 통합민주당 | 자유선진당 | 한나라당 |
|----------------|---------|-------|-------|-------|-------|------|
| 전체 | 이념위치 | 5.54 | 3.81 | 4.55 | 5.54 | 6.48 |
| 성별 | 남 | 5.50 | 3.46 | 4.39 | 5.88 | 6.76 |
| | 여 | 5.52 | 4.18 | 4.71 | 5.18 | 6.18 |
| 학력별 | 중졸이하 | 6.10 | 3.75 | 4.54 | 4.59 | 6.22 |
| | 고졸 | 5.74 | 3.93 | 4.66 | 5.35 | 6.41 |
| | 대졸이상 | 5.32 | 3.75 | 4.49 | 5.75 | 6.54 |
| 소득별 (월, 만원) | 300 이하 | 5.64 | 3.80 | 4.65 | 5.28 | 6.34 |
| | 300~600 | 5.40 | 3.78 | 4.46 | 5.71 | 6.56 |
| | 600 이상 | 5.46 | 3.82 | 4.43 | 5.90 | 6.72 |
| 연령별 | 20대 | 4.97 | 4.10 | 4.76 | 5.29 | 6.35 |
| | 30대 | 4.92 | 4.18 | 4.72 | 5.87 | 6.57 |
| | 40대 | 5.63 | 3.89 | 4.46 | 5.41 | 6.29 |
| | 50대 | 5.89 | 3.34 | 4.52 | 5.69 | 6.45 |
| | 60대이상 | 6.42 | 3.21 | 4.21 | 5.46 | 6.79 |

〈표 7〉 2012 선거 시 응답자 자신과 정당의 이념위치: 성별, 학력별, 소득별, 연령별

| | | 응답자자신 | 통합진보당 | 민주통합당 | 자유선진당 | 새누리당 |
|-----|---------|-------|-------|-------|-------|------|
| 전체 | 이념위치 | 5.16 | 3.36 | 4.36 | 5.74 | 7.17 |
| 성별 | 남 | 5.09 | 3.00 | 4.25 | 6.11 | 7.29 |
| | 여 | 5.24 | 3.77 | 4.49 | 5.32 | 7.04 |
| 학력별 | 중졸이하 | 6.09 | 3.04 | 4.39 | 4.51 | 7.09 |
| | 고졸 | 5.37 | 3.56 | 4.42 | 5.36 | 7.03 |
| | 대재 | 4.89 | 3.21 | 4.06 | 5.62 | 7.00 |
| | 대졸이상 | 4.86 | 3.29 | 4.41 | 6.31 | 7.38 |
| 소득별 | 300 이하 | 5.19 | 3.44 | 4.48 | 5.43 | 7.01 |
| | 300~600 | 5.11 | 3.35 | 4.34 | 5.94 | 7.26 |
| | 600 이상 | 5.15 | 3.09 | 4.12 | 5.89 | 7.33 |
| 연령별 | 20대 | 4.41 | 3.83 | 4.44 | 5.52 | 7.21 |
| | 30대 | 4.74 | 3.92 | 4.71 | 5.94 | 7.06 |
| | 40대 | 4.97 | 3.34 | 4.53 | 6.30 | 7.32 |
| | 50대 | 5.72 | 2.79 | 4.01 | 5.64 | 6.93 |
| | 60대이상 | 6.15 | 2.72 | 4.02 | 5.02 | 7.36 |

다면, 월 300만원 이하 소득 그룹은 5.64에서 5.19로 약 0.45, 월 300~600만원 소득 그룹은 5.40에서 5.11로 약 0.29, 월 600만원 이상 소득그룹은 5.46에서 5.15로 약 0.31 정도 평균적으로 중도성향에 가까워졌다. 주요 정당의 이념위치에 대한 평가는, 소득 그룹별 분석에서도 그룹별 차이 또는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그룹에서는, 2008년 선거 시에는 물론 2012년 선거 시에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다만 2008년에 20대와 30대가 각각 4.97, 4.92로 비슷한 수준의 진보성향을 보이고, 40대와 50대가 각각 5.63, 5.89로 비슷한 수준의 보수성향을 보이며, 60대 이상이 6.42로 좀 더 보수적으로 나타났다면, 2012년에는 20·30·40대가 각각 4.41, 4.74, 4.97로 다소 진보성향을,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5.72과 6.15으로 다소 보수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적인 성향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보수에서 중도 또는 중도에서 진보로 이동했는데, 그 정도는 20대가 0.56, 30대가 0.18, 40대가 0.66, 50대가 0.17, 60대 이상이 0.27로, 20대와 40대의 이동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당의 이념위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60대 이상 그룹을 제외하면 그룹별 차이 또는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60대 이상은, 통합진보당을 2.72, 민주통합당을 4.02, 새누리당을 7.36으로 평가하여, 자유선진당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다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진보정당을 보다 진보적이라, 보수정당을 보다 보수적이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이런 경향은 2008년 분석에서도 나타나는데, 역시 자유선진당을 제외한다면, 민주노동당을 3.21, 통합민주당을 4.21, 한나라당을 6.79로 평가하여, 다른 연령대의 평가에 비해 진보정당을 보다 진보적이라, 보수정당을 보다 보수적이라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학력·소득보다는 연령이, 상이한 이념성향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60대 이상과 40대 이하 연령 그룹간 관점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응답자의 비율이 성별, 학력별, 소득별, 연령별로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자. 우리는 그 결과를 <표 8>에 요약하였다.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응답자의 비율에서도, 각 유형의 인구 그룹별로 명확한 차이점이나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2008년과 2012년 모두, 다른 학력그룹에서보다 중졸 이하 학력그룹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2012년에는 30대를 제외한다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다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표 8〉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응답자의 비율

(단위: %, 만원)

| |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 |
|-----------|---------|---------------|------|---------------|------|
| | | 지역구 | 비례대표 | 지역구 | 비례대표 |
| 전체 | 비율 | 53.6 | 55.4 | 55.4 | 55.7 |
| | 관측갯수 | 796 | 697 | 1328 | 1367 |
| 성별 비율 | 남 | 53.8 | 58.4 | 55.5 | 55.4 |
| | 여 | 53.5 | 52.3 | 55.3 | 55.9 |
| | 관측갯수 | 796 | 697 | 1328 | 1379 |
| 학력별 비율 | 중졸이하 | 56.5 | 59.0 | 71.3 | 71.2 |
| | 고졸 | 50.9 | 50.4 | 53.9 | 56.5 |
| | 대재 | 54.8 | 57.7 | 57.4 | 54.5 |
| | 대졸이상 | 54.8 | 57.7 | 51.9 | 50.7 |
| | 관측갯수 | 796 | 697 | 1325 | 1364 |
| 소득별 비율 | 300 이하 | 56.5 | 57.8 | 55.9 | 57.2 |
| | 300~600 | 50.5 | 52.4 | 54.8 | 53.0 |
| | 600 이상 | 60.3 | 60.7 | 52.1 | 56.6 |
| | 관측갯수 | 787 | 689 | 1288 | 1326 |
| 연령별 비율 | 20대 | 53.6 | 56.1 | 51.4 | 48.8 |
| | 30대 | 53.8 | 56.7 | 45.6 | 45.3 |
| | 40대 | 53.9 | 55.8 | 54.8 | 53.0 |
| | 50대 | 54.8 | 54.2 | 57.5 | 61.2 |
| | 60대이상 | 52.0 | 53.9 | 66.5 | 68.1 |
| | 관측갯수 | 796 | 697 | 1328 | 1367 |

이에 더해 다른 학력 그룹에서는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비율이 감소하거나 10%p 미만으로 증가하였으나, 중졸 이하 학력 그룹에서는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연령그룹에서는 2008년에 비해 2012년에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비율이 감소하거나 10%p 미만으로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 연령 그룹에서는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사람들의 비율을, 진보, 중도 및 보수성향 유권자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보았는데 〈표 9〉에 그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9〉에 따르면 2012년 선거 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각 보수성향 응답자의 65.4%, 67%가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였으며, 진보성향 응답자의 46%, 48.6%, 중도성향 유권자의 49.9%, 47.1%가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여, 보수성향 응

〈표 9〉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응답자의 이념성향별 비율

(단위: %)

|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 |
|-------------|---------------|------|---------------|------|
| | 지역구 | 비례대표 | 지역구 | 비례대표 |
| 진보성향 (0-4) | 50.8 | 55.1 | 46.0 | 48.6 |
| 중도성향 (5) | 50.6 | 49.4 | 49.9 | 47.1 |
| 보수성향 (6-10) | 57.0 | 59.8 | 65.4 | 67.0 |
| 관측갯수 | 793 | 694 | 1289 | 1324 |

답자가 중도성향 및 진보성향 응답자보다 더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분석에서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비율이 높았던, 중졸이하 학력그룹과 60대 이상 연령그룹이 보수성향이며, 또한 지역별로도 보수성향의 대구·경북 등에서 이념에 충실한 투표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자신과 정당의 이념위치를 보다 뚜렷이 구분하고 그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함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진보성향 응답자와 보수성향 응답자가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비율의 차이는, 2008년 10%p 미만에서 2012년 약 20%p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4. 이념성향 및 이념에 충실하지 않은 투표에 대한 회귀분석

우리는 2절 및 3절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성향이 있으며, 보수성향일수록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다변수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2절 및 3절에서 사용한 4가지 변수들(성, 학력, 소득, 연령) 외에도 추가로 다양한 변수들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회귀방정식의 독립변수로 성, 결혼여부, 수도권 출신여부, 영남 출신여부, 호남 출신여부, 연령, 대재이상 학력여부, 소득수준, 기독교인 여부, SNS 사용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다만 2008년에는 결혼여부와 SNS 사용여부에 대한 설문 질문이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 또 2012년에는 소득수준 대신 주관적 귀속계급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8년 선거 시의 소득수준은 월 평균수입 50만원 수준에서 950만원 수준까지 100만원 단위의 구간으로 나누었고 그 이상은 월 1500만원 수입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2012년 선거

〈표 10〉 이념성향에 관한 회귀분석: 2008년 국회의원 선거

| | 유권자의 이념위치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 여성 | 0.0198 (0.177) | | |
| 출신지: 수도권 | -0.157 (-0.952) | -0.456+ (-1.895) | 0.132 (0.595) |
| 출신지: 경상도 | -0.0142 (-0.0907) | -0.391+ (-1.715) | 0.346 (1.646) |
| 출신지: 전라도 | -0.627** (-3.648) | -1.133** (-4.580) | -0.0911 (-0.388) |
| 연령 | 0.0413** (8.929) | 0.0546** (8.551) | 0.0245** (3.702) |
| 대학교육 | -0.0647 (-0.503) | 0.191 (1.028) | -0.378* (-2.163) |
| 소득수준 | 0.000350 (1.445) | 0.000508 (1.423) | 0.000116 (0.359) |
| 기독교인 | -0.0228 (-0.186) | 0.0520 (0.282) | -0.0842 (-0.522) |
| 상수항 | 3.795** (12.57) | 3.271** (7.826) | 4.516** (11.24) |
| 관측값수 | 1,104 | 568 | 536 |
| R-Squared | 0.099 | 0.156 | 0.066 |

※ t-값: ** p<0.01, * p<0.05, + p<0.1

시의 주관적 귀속계급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묻는 설문을 활용하여, 하위 20%를 1, 상위 20%를 5로 5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은 전체자료에 대해서 수행되었을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표본을 나누어서도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 요약되어 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전라도 출신여부와 연령이 이념위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다른 변수들은 별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2년 선거 시에는 전라도 출신여부와 연령 외에도 대학교육 여부, 주관적 귀속계급, 기독교인 여부, SNS 사용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연령은 2008년에 8.929, 2012년에 8.542의 매우 높은 t-값을 보였다.

〈표 11〉 이념성향에 관한 회귀분석: 2012년 국회의원 선거

| | 이념위치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 여성 | 0.0577 (0.566) | | |
| 기혼자 | -0.126 (-0.875) | -0.0639 (-0.317) | -0.241 (-1.148) |
| 출신지: 수도권 | -0.0235 (-0.163) | -0.0590 (-0.280) | 0.0198 (0.0997) |
| 출신지: 경상도 | 0.0831 (0.588) | 0.0335 (0.164) | 0.135 (0.686) |
| 출신지: 전라도 | -0.656** (-4.078) | -0.911** (-3.871) | -0.389+ (-1.764) |
| 연령 | 0.0411** (8.542) | 0.0444** (6.332) | 0.0372** (5.626) |
| 대학교육 | -0.214+ (-1.881) | -0.201 (-1.215) | -0.277+ (-1.757) |
| 주관적 귀속계급 | 0.269** (4.106) | 0.276** (3.011) | 0.256** (2.710) |
| 기독교인 | 0.368** (3.287) | 0.541** (3.264) | 0.194 (1.281) |
| SNS 사용자 | -0.282* (-2.448) | -0.213 (-1.338) | -0.373* (-2.197) |
| 상수항 | 2.906** (9.852) | 2.690** (6.667) | 3.281** (7.833) |
| 관측갯수 | 1,842 | 932 | 910 |
| R-Squared | 0.102 | 0.118 | 0.090 |

※ t-값: ** p<0.01, * p<0.05, + p<0.1

앞에서 우리는 유권자의 이념위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어떤 변수들이 유권자 이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이념에 충실하지 않은 투표 여부에는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념에 충실하지 않은 투표에 1의 값을, 이념에 충실한 투표에 0의 값을 부여한 후 프로빗 분석을 시도하였다. 해당 분석에서는 앞의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더해 각자의 이념위치를 추가한 분석 또한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2〉와 〈표 13〉에 요약되어

〈표 12〉 이념에 충실하지 않은 투표 여부 결정요인에 관한 probit분석: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 이념에 충실하지 않은 투표 | | | |
|----------|-----------------------|-----------------------|-----------------------|-----------------------|
| | 2008년 | | 2012년 | |
| 이념위치 | | -0.0749** (-3.045) | | -0.0941** (-5.411) |
| 여성 | -0.0121 (-0.133) | 0.00297 (0.0322) | 0.0107 (0.147) | 0.0298 (0.402) |
| 기혼자 | | | 0.0762 (0.711) | 0.0290 (0.268) |
| 출신지: 수도권 | 0.171 (1.318) | 0.145 (1.109) | -0.0962 (-0.945) | -0.0842 (-0.816) |
| 출신지: 경상도 | 0.0826 (0.650) | 0.0792 (0.619) | 0.0528 (0.527) | 0.0752 (0.738) |
| 출신지: 전라도 | 0.00580 (0.0419) | -0.0422 (-0.302) | 0.279* (2.444) | 0.226+ (1.932) |
| 연령 | -0.000670 (-0.175) | 0.00290 (0.725) | -0.0137** (-3.967) | -0.00745* (-2.060) |
| 대학교육 | -0.0930 (-0.900) | -0.0938 (-0.901) | -0.0636 (-0.775) | -0.114 (-1.372) |
| 소득수준 | 0.000098 (0.473) | 0.000139 (0.666) | | |
| 주관적 귀속계급 | | | 0.0109 (0.230) | 0.0335 (0.690) |
| 기독교인 | -0.0557 (-0.567) | -0.0561 (-0.568) | -0.0241 (-0.303) | 0.0295 (0.361) |
| SNS 사용자 | | | 0.155+ (1.895) | 0.133 (1.608) |
| 상수항 | -0.0980 (-0.391) | 0.158 (0.594) | 0.361+ (1.661) | 0.575* (2.554) |
| 관측갯수 | 787 | 784 | 1,298 | 1,266 |

※ z-값: ** p<0.01, * p<0.05, + p<0.1

있다.

우선 지역구 선거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자(〈표 12〉 참조).

2008년의 경우 유권자의 이념위치를 포함하지 않은 분석에서는, 이념에 충실하지

〈표 13〉 이념에 충실하지 않은 투표 여부 결정요인에 관한 probit분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 | 이념에 충실하지 않은 투표 | | | |
|----------|----------------------|-----------------------|-----------------------|-----------------------|
| | 2008년 | | 2012년 | |
| 이념위치 | | -0.0694** (-2.623) | | -0.0722** (-4.293) |
| 여성 | 0.121 (1.236) | 0.122 (1.247) | 0.0233 (0.323) | 0.0364 (0.497) |
| 기혼자 | | | -0.00963 (-0.0918) | -0.0533 (-0.504) |
| 출신지: 수도권 | 0.132 (0.919) | 0.107 (0.736) | -0.129 (-1.272) | -0.114 (-1.104) |
| 출신지: 경상도 | 0.0948 (0.679) | 0.0728 (0.516) | -0.0423 (-0.426) | -0.0267 (-0.266) |
| 출신지: 전라도 | 0.142 (0.960) | 0.0960 (0.642) | 0.0388 (0.347) | 0.00182 (0.0159) |
| 연령 | -0.00216 (-0.537) | 0.00112 (0.265) | -0.0137** (-4.022) | -0.00865* (-2.436) |
| 대학교육 | -0.145 (-1.314) | -0.150 (-1.353) | 0.0186 (0.228) | -0.0287 (-0.348) |
| 소득수준 | 0.0000461 (0.213) | 0.0000647 (0.298) | | |
| 주관적 귀속계급 | | | 0.0133 (0.285) | 0.0279 (0.581) |
| 기독교인 | 0.0329 (0.309) | 0.0395 (0.370) | -0.113 (-1.411) | -0.0762 (-0.932) |
| SNS 사용자 | | | 0.0840 (1.031) | 0.0683 (0.830) |
| 상수항 | -0.139 (-0.520) | 0.119 (0.415) | 0.495* (2.305) | 0.670** (3.023) |
| 관측갯수 | 689 | 686 | 1,335 | 1,299 |

※ z-값: ** p<0.01, * p<0.05, + p<0.1

않은 투표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념위치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이념위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는 음수이다. 즉 진보일수록 이념에 충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다.

반면 2012년 선거에서는 전라도 출신여부와 연령, 그리고 본인의 이념위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일수록, 그리고 전라도 출신일수록 이념에 충실하지 않게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자(〈표 13〉 참조). 앞의 지역구 선거와 대동소이한 패턴을 보이지만, 한 가지 차이는 2012년 선거의 경우, 전라도 출신변수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선 회귀분석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상기한 프로빗 분석 결과를 보면, 각자의 이념위치를 포함하여 분석할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연령 변수에 대한 z-값이 크게 낮아지고, 각자의 이념위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 연령일 경우에도 보수적 성향일수록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령 자체보다는 보수적 성향이 이념에 충실한 투표 여부의 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2008년과 2012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50% 이상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체뿐 아니라 성별, 학력별, 소득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성별, 학력, 소득별 인구그룹은 이념과 투표행태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 인구그룹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서,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일연령대에서는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중도 또는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보다 더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함을 살펴보았다. 이어 시행한 회귀분석을 통해, 위 내용을 통계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응답자 자신의 이념위치와 응답자가 투표한 정당의 이념위치 간에 매우 높은 조응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 높은 조응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 가설 모두와 양립가능하다.

첫 번째 가설은 유권자가 합리적 판단 하에 자신에게 최적인 이념위치를 설정하고, 이 이념위치에 가장 가까운 정당에 투표한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유권자에게 사전적으로 정당일체감이 주어지며 (예컨대 부모나 출신지역의 영향으로 좋아하는 정당을 이념과 상관없이 먼저 결정하며), 그 이후 자신이 일체감을 갖는 정당의 이념위치에 가장 가깝게, 자신의 이념위치를 조정한다는 가설이다. 즉 자신의 이념위치를, 자신이 일체감을 갖는 정당의 이념위치로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설에 의하면 자신의 이념과 정당의 이념 간 차이를 판별하는 합리적 이성에 의해 정당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선호나 애착심이 먼저 주어지고 이것이 차후에 자신의 이념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정치이론들은 유권자의 합리성을 전제하는 첫 번째 가설에 근거하고 있는데 본 논문의 실증분석도 이 전통적 가설에 기초하였다. 반면 두 번째 가설은 유권자의 비합리성 혹은 이념의 내생적 형성(endogenous formation of ideology)에 관한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두 번째 가설에는 몇 가지 비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개인들은 부모나 동향 사람들로부터 특정 정당에 대한 일체감뿐 아니라 이념도 함께 영향 받을 수 있는데 이 둘을 적절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후자의 가설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특정 정당의 지지여부와 별개로 각 정당에 대한 별도의 이념위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표 2>를 보면 소위 보수정당에 투표한 응답자는 모든 정당을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 평가하고, 반대로 진보정당에 투표한 응답자는 모든 정당을 보수적이라 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실증분석이 이 두 가지 가설들 중 어느 쪽 가설에 더 가까운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E-mail: woojinlee@korea.ac.kr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대학원생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E-mail: theking@korea.ac.kr

참 고 문 헌

이우진 · 이원석(2012) “한국 역대 선거에 있어서의 이념과 투표: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 2010년 지방선거”, 『한국 경제의 패널 분석』, **18, 2**.

Downs, A.(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NY, Harper Collins.

Hinch, M., and M. Munger(1994), *Ideology and the Theory of Political Choic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North, D.(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ichley, J.(1981), *Conservatives in an Era of Change: The Nixon and Ford Administr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Abstract

Ideology and Voting in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s: 2008 and 2012

Woojin Lee and Tae-Eun Kim

This paper examines how faithful to their ideology Korean voters have been in the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s of 2008 and 2012. We used the panel studies surveyed by the East Asia Institute-SBS-JoongAng Daily Election Studies Team.

We find that a vast majority of Korean voters were very clear about ideology positions of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as well as their positions, and voted for the party or the candidate whose ideology position is closest to theirs. The fraction of voters who voted for the party or the candidate whose ideology position is closest to theirs is 53.6% in 2008 and 55.4% in 2012. The degree of ideology-faithfulness does not significantly differ across genders, education levels, income levels, and religions, but differ across age groups and ideology groups. The more aged and the more conservative is a voter, the higher the degree of ideology-faithfulness he/she has.

Keywords: Ideology, Voting, Spatial theory of voting